

사설

무차선회를 활성화하자

“어떤 것이 향상(向上)의 진리입니까? ” “반리에 백골(白骨)이 즐비함이다.” 이상은 지난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무차선회에서 벌어졌던 법거랑 내용이다. 선의 파격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번대회를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의 정해스님. 무차선회의 전통이 사라진 중국불교계의 현실에서 선어록에서나 짐작했던 무차선회가 한국에 온전히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다.

중국에서는 법의 보편성, 법의 공유성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무차선회가 시작되었다. 양나라 대통원년인 527년의 일이다. 이것이 선종의 발전과 함께 무차선회로 계승되었다. 우리나라는 20여년전까지 선원에서 안거가 끝날 무렵에 혹은 특별한 장소

와 기일을 정하여 시행되어 왔다.

이번처럼 규모가 큰 무차선회는 98년도에 전남 장성의 백양사에서 서용근스님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금년이 3회인 셈. 그러나 금년을 끝으로 국제무차선회는 사라질 형편이다. 비유를 비롯해 제반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함께 어울려 법거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어려워 훌륭한 전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선원을 중심으로 무차선회의 전통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승속이 어울릴 수 있는 대규모 무차선회는 종단 차원에서 기획하면 가능하다. 훌륭한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애정을 지녀야 한다.

복지참여는 시대적 요청

불교계의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8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년 보다 총141개소의 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복할 사항은 복지시설이다. 불교계가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복지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역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받는 계만 익숙해져 있던 사찰이 사회적 환원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종교적 권위로 군림하려는 종교를 원하지 않고 있다. 사찰과 신도, 내지 지역사회와 사찰이 긴밀한 유대 속에서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찰이 능동적으

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중 하나가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불교도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불교계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나 근로자는 미래의 희망이다. 그들이 미래의 한국역사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청소년이나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불교계가 그들과 호흡을 보다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마당을 만들도록 사부대중이 노력해야만 한다.

승복 모자 신발 가방도 통일

조계종 스님 의제 통일화 일환, 고급화 풍토 개선

의제 재질 모직물등 동물성 섬유 금지

여름엔 밀짚모자...가죽신·등산화 안돼

승복을 포함한 스님들의 의제 전반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가사 통일화 작업을 벌여 온 조계종 법계위원회 산하의 제실무연구회의장 종진(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제4차 회의에서 승가의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세부안을 마련해 법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승복과 모자, 신발, 가방 등 스님들이 일상에서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의제의 재질과 허용범위.

우선 의제실무연구회는 모든 의제의 재질에 견직물이나 모직물 등 동물성 섬유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는 풍토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자의 경우 여름용으로는 밀짚모자, 겨울용으로는 합성섬유로 된 방한모로 제한하고, 색상도 재색으로 통일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가방도 걸방이나 손가방 이외에 다른 형태의 가방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재질도 무명이나 광목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신발의 경우 수행 시에는 고무신, 맨발(작업시에는 운동화계통의 지정된 신발을 신도록 하고, 가죽신이나 등산화 등은 신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 11월 한달간 자료조사를 벌인 뒤 12월11일 5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종진스님은 “승복에 대한 원칙이 없어 승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많은 스님들이 의제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제실무연구회는 지난달 법계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가사 취향과 관련해 일부 법계의 색상을 조정하고, 취향에 맞게 초창을 넣는 문제는 시제품을 만들어 평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바깥가사 취향의 색깔은 종덕의 경우 황색에서 적색으로, 대덕은 적색에서 남색으로, 건덕은 가사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했다.

한명우 기자 mwthan@buddhapia.com



회계사 국제세원에서 열린 '외국인스님 교과안거'에서 스님들이 경희대 철학과허우성 교수의 권사불교 특강을 듣고 있다.

외국인스님들 첫 교과안거

유고등 14국 18명 참가...강의·습의 등 교육

외국인 스님들이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첫 교과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배)은 21일 서울 수유리 회계사 국제선원에서 유고, 폴란드, 이스라엘, 대만, 체코 등 14개국 18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스님 교과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교과안

거(산월교육)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본지 391호 3면 기사 참조). 그동안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 부족, 한문 중심의 강연 교과과정 등의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강연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교과안거는 강원(동국대, 중앙승가대)을 졸업해야만 구족계수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돼 있

는 종단 기본교육법에 따라 외국인스님들에게도 구족계수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과안거는 강의와 참선, 발우공양 등 기본적인 습의와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 스님들과 외국인 스님들 간의 대화의 장은 한국불교문화화를 정착하고 빠르게 배울 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캐나다 출신의 자은 사미니는 “이번 교과안거를 통해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집전 의식과 교과학습을 받은 점이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본사사령

위촉: 현대불교 제3기 논설위원 석성본(동국대 교수) 석도수(정음도량 회주) 김용운(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근후(영리미디어클럽 회장) 성태용(건국대 교수) 김경자(연원종 윤원철(서울대 교수)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 위원) 이종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강렬(이르코픽처스 코리아 대표) 이상 10명. 2002년 10월 22일부

“시대 선도 종단 만드는데 진력”

총지종 13대 통리원장 법공 종사



“승단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명실공히 시대 선도 종단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옛보다도 모든 정책은 철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수립할 생각”이라며 “지난 95년 통리원장 재직시 구상했던 종단 차원의 청소년 포교 강화, 법장원 중앙교육원 활성화 등의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임 전 통리원장의 잔여 임기 1년 2개월을 맡게 된 법공 통리원장은 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종합복지센터 건립, 인터넷 영상 포교 강화, 총지종 용

철저한 의견수렴 거쳐 정책 수립

23일 서울 강남 총지사에서 총지종 제13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법공 종사(60) 부산 성화사 주교는 종단 발전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지난 89. 92년 두 차례 통리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95년 10대 통리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법공 종사는 “승단 전체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만큼 무

어사전 불교종정 조조법설집 간행, 밀교경전 복원 및 역경 등의 정책사업도 승계해 나가고 양로원 건립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공 통리원장은 1943년 경북 영일 출생으로 저무부장, 서울 총지사 주교, 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대전 만보사 주교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는 22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출마한 자광스님을 신임 주지로 선출했다. 자광스님(사izen)은 도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해인사에서 도견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8년 봉도사에서 청하스

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실상사봉암사 김통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95년부터 생명나눔실천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여기서도 부처님법음 듣고 싶어요

학림건강연구원이 만든 목초액 습포제

佛子님 건강 에 이 치 엘 HEALTH PATCH 패치가 책임집니다

붙이기만 하면 노폐물 제거 - 불자·수험생에게 최고의 선물!



탐진·치삼목까지 다 풀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문제는 ‘에이치엘 패치’에 맡겨 주십시오. 아쉽게도 목초액 습포제인 ‘에이치엘 패치’는 삼목까지 다 풀어 드릴수는 없습니다. 대신 삼목 만큼이나 고통스런 피로와 스트레스는 ‘에이치엘 패치’로 확 풀어 드릴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하여! 육체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탈출. HEALTH PATCH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각종 불사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스님이나 기도하고 수련으로 몸 고생이 심한 불자님들, 그리고 밤새워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수험생과 노약자, 노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 드리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이

제사용 방법은 습포제로 된 에이치엘 패치를 발바닥 또는 환부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노폐물과 통증이 제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것 입니다. 특히 몸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의 흔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마음은 기도로 찾으시고 건강은 ‘에이치엘 패치’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본인도 놀랄것 입니다.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들,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컨디션이 안 좋은분, 가사 노동이 많은 주부, 긴장된 육체활동에 종사하는 분, 온몸이 무질근한 분, 운동을 심하게 하신 분,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운전하시는 분

※ 학림건강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여 실습 위주의 대체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찰에서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달마도 무료 증정



청정스님 인연 있는 불자님들에게 청정스님 달마도를 드립니다.

더욱 알려져 있으며 특히 청정스님 달마도의 질병 치료 효험은 많은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진귀한 달마도를 기증하시게 된 이유는 3년전 중풍으로



목초액 습포제 에이치엘 패치를 구입하시는 인연 있는 불자 100분에 청정스님 달마도 1점씩을 드립니다. 청정스님(대각사 총무스님)은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불가에 입문한 지 39년째 되었으며 스님의 달마도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쓰러져 전신이 마비가 되었을 때 학림건강연구원 구원의 ‘속독’과 ‘에이치엘 패치’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만큼 큰 효험을 본 것이 인연이 되 어 선뜻 기증 하여 주셨습니다. (작품이 100점으로 한정되어 있음 알려드립니다)

함께 할 학림건강연구원의 새 가족을 모집합니다.

불자건강을 목표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할 지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재구매율이 높아 사업이 안정적이며, 사용이 간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제품 취급업체 견입도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학림건강연구원 구입처: 02)765-5573 / 766-5573